

패션·유통업계, 스포츠 팬덤 주목… 유니폼·굿즈 등 점점 확대

형지엘리트 FC서울 등 파트너십
W컨셉 SSG랜더스 컬렉션 출시
이랜드 울산HD 구단 홈웨어 공개

프로 스포츠 경기장이 패션 트렌드와 팬덤 소비의 핵심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와 여성 관중의 유입이 늘며 패션·유통업계가 스포츠 구단 IP(지식 재산권)를 활용한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9일 패션·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 기업의 스포츠 후원은 유니폼 제작과 로고 노출을 넘어 최근 스포츠 팬덤을 흡수한 '통합 커머스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구단 공식 용품 및 유니폼 공급 ▲D2C(소비자 직접 판매) 상품 기획 ▲현장 이벤트 ▲오프라인 매장·팝업 운영 ▲각종 콜라버 등 다양한 양상으로 팬덤을 흡수하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스포츠 브랜드 '윌비플레이'는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 프로축구단 FC서울 등 대형 팬덤을 보유한 구단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단순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경기 현장에서 적극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지난 15일 FC서울 홈경기에서 '형지엘리트데이'를, 19일 한화이



윌비플레이 X 한화이글스 브랜드 매치데이 포스터.

/형지엘리트



무신사 x 잔스스포츠 x LG 트윈스 협업 상품 이미지.

/무신사

글스 홈경기에서 '윌비플레이 브랜드데이'를 진행했다. 응원부채, 배팅 장갑, 선수 친필 사인볼 등 다양한 굿즈 증정과 경품 행사를 열고 현장에서 수렴한 팬들의 의견은 차기 굿즈 개발에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FC서울의 오프라인 매장 '뎀파크'를 재개장해 운영하는 등 경기장을 거점으로 한 소비 접점을 넓히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스포츠 유니폼 및 MD 상품을 포함한 스포츠 사업 부문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엘리트 스포츠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1억4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

년 동기(2024년 7월~2025년 3월) 198억6600만원 대비 122% 증가했다. 주요 사업군인 교육 부문 사업 매출(413억9600만원)도 넘어서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진입도 거세다. '언더아머'는 지난 3월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와 어센틱 유니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선수가 입는 것과 동일한 사양의 유니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매개로 선수와 팬 사이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언더아머 서울 브랜드 하우스를 라이온즈파크라커룸으로 재현하고

구매 고객에게 선수 이름과 번호를 새겨주는 마킹 서비스도 제공했다.

인기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아이엠프 스튜디오' 역시 2023 시즌부터 프로야구단 KIA타이거즈와 협업해 유니폼·잡화를 출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KIA타이거즈광주홈경기 3연전에서 '아이엠프 스튜디오 오 브랜드 데이'를 열었다. 아이엠프 스튜디오 공동 대표이자 래퍼인 빈지노가 직접 시구자로 나서 팬들과 만나며 화제성을 더했다.

플랫폼들도 스포츠 팬덤의 일상 소비를 끌어내고 있다.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지난달 스포츠웨어 브랜드 '미나수'와 손잡

고 프로야구단 SSG랜더스의 협업 컬렉션을 단독 출시했다. 경기복과 일상복을 아우를 수 있는 베이스볼 저지, 러닝쇼츠 등으로 구성했다. W컨셉은 지난달 25일 인천 마추홀구 SSG랜더스필드에서 'W컨셉 데이'를 열고 랜더스 플래그십 스토어 한정 판매도 진행하는 등 직판에 나선 2030 여성 팬덤 접점을 넓혔다.

무신사트레이딩은 지난달 28일 '잔스스포츠xLG트윈스' 컬렉션으로 야구장과 일상의 경계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가방·잡화를 출시했다. 프로야구단 LG 트윈스 유니폼의 줄무늬와 구단 상징을 잔스스포츠 시그니처 백팩에 적용한 'LG 트윈스 스트라이프'를 한정 판매했다. 구단 마스코트 '네로'를 활용한 열쇠고리도 선보였다. 출시 당시 잠실야구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잔스스포츠와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판매를 확대했다.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는 지난달 프로축구단 울산HD와의 협업 상품 출시했다. 스파오는 윈드브레이커와 나일론 셋업, 반팔 티셔츠, 백팩·열쇠고리 등을 선보였다. 특히 스파오의 인기 상품군인 파자마에 울산HD의 정체성을 담아 구단 첫 홈웨어를 공개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rystal@metroseoul.co.kr



metro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더 플라자' 전면 리모델링

서울시 소공 1·2·3지구 개발사업 일환
객실·F&B 등 하이엔드 호텔 재도약
내달 30일 영업중단… 2029년 재개장

서울 중구 소공동의 랜드마크 호텔인 '더 플라자(THE PLAZA)'가 대규모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영업은 오는 9월 30일 자로 중단되며, 내년 초부터 약 3년간 공사를 거쳐 2029년 재개장할 예정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개관 50주년을 맞아 주요 객실을 최고급 스위트룸 중심으로 전환하고 F&B 및 공간 구성을 대폭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더 플라자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약 16년 만이다.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은 최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구조 개편이다. 기존 디럭스 위주의 객실을 최고급 스위트 객실로 재구성하고,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객실 내 업무 공간과 클럽라운지 규모를 대폭 확장한다.

F&B 분야에서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등 세계적인 파인다이닝을 적극 유치해 미식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더 플라자 리모델링 조감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함께 세계 최대 럭셔리 독립 호텔 연합체인 '더 리딩 호텔스 오브 더 월드(LHW)' 가입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공 1·2·3지구 통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지구 더 플라자를 비롯해 2지구 한화빌딩, 3지구 한화금융플라자 등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 3곳의 골조를 유지한 채 일대 공간을 재단장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외벽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서울시청·경복궁·

덕수궁·청와대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정원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현재 건축 허가를 완료한 상태로, 건축물 해체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리조트 '안토(ANTO)',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갤러리아 명품관'과 함께 한화그룹의 하이엔드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영업 중단을 앞두고 고객 감사 이벤트인 'Memories of THE PLAZA'도 운영한다. 호텔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아 추첨을 통해 숙박권 및 PB 상품을 증정하며, 세븐스퀘어, 블랑제리 더 플라자, 주요 객실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개관 50주년을 기점으로 더 플라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이엔드 호텔로 거듭날 것"이라며 "그간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감사드리며 차원이 다른 공간과 서비스로 다시 찾아 뵈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팔도, 나주공장 자율제조 시스템 도입

AI 기반 생산공정 고도화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주력 생산 거점인 나주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하며 생산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나주공장은 팔도비빔면, 왕뚜껑, 도시락 등 팔도의 핵심 라면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시설이다. 팔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품질 안정성과 제조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된 AI 자율제조 시스템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작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는 구조다.

AI가 직접 현장 상황을 판단해 설비 제어까지 수행하는 '피지컬 AI' 기술이 적용됐다. 라면 제조의 핵심인 면(麵) 생산 공정에서 면발 두께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자동 설정하며, 면의 수분·지방 등 주요 성분 및 제품 중량을 관리해 품질 편차를 크게 줄인다.

인력 개입 최소화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팔도 나주공장 전경.

/팔도

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생산 품목을 변경할 때 작업자가 설비 설정값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으나, 새 시스템 도입으로 제품별 조건값이 자동 전환되어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AI 융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스마트공장 솔루션 기업 엠아이큐브솔루션이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팔도는 향후 축적되는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나주공장의 생산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22일 '팔라스' 매장 오픈… 단독상품 선보인다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155㎡ 규모 조성

롯데백화점이 오는 22일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영국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팔라스(PALACE)' 매장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약 155㎡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매장은 압구정과 홍대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매장이자 전 세계 10번째 오프라인 매장이다.

국내 유통사가 팔라스 매장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팔라스는 2009년 영국 런던에서 레브탄주(Lev Tanju)와 가레스 스쿼이스(Gareth Skewis)가 설립한 브랜드다.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삼각형 형태의 '트라이퍼그(Tri-Ferg)' 로고와 그래픽을 활용한 후디, 티셔츠, 아우터 등이 주요 제품이다. 다양한 글로벌 브랜

드와 협업 컬렉션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월드몰 매장 개장을 기념해 팔라스와 단독 상품을 선보인다. 팔라스의 스페셜 컬렉션을 비롯해 후드, 재킷, 모자 등 총 18종으로 구성된 월드몰 단독 컬렉션을 판매한다. 롯데월드 캐리커인 로티와 협업한 상품 2종과 로티 협업 상품 1종도 포함됐다.

/김서현 기자 seoh@

던킨, 전 품목 50% 할인

네이버페이 결제시 1일 1회 혜택

던킨은 오는 22일까지 네이버페이와 함께 전 품목 50%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던킨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신제품 '말랑 바나나'와

'페이머스 클레이즈드', '먼치킨' 등 대표 도넛은 물론 '하이스 아메리카노', '비타슬러시' 등을 비롯한 여름 음료까지 전 품목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최대 1만원까지 적용된다. 프로모션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매장에서 네이버페이QR(머니·포인트카드)로 결제하면 1일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행사 및 쿠폰, 제휴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던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